

학술진흥 탁상행정 위협받는 불교학계

교과부, 학술지 선호도 조사... 신빙성 의문

지난해 말 조사 완료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의 국내 학술지 선호도 조사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발표한 학술지 자율 평가 체제 정착을 위해 이뤄진 조사였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학술진흥정책 자문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학회 논문지>를 비롯한 66개의 학술지가 한국 학자들이 선호하는 학술지로 꼽혔다. 이중 인문학 관련 학술지는 한국철학회의 <철학> 등 3곳에 불과했다. 종교 관련 학술지는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이 유일하다. 표면적 결과를 놓고 보면 불교계 학술지는 한국 교수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면 조사의 한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조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등재된 연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응답자 수는 12%에 불과한 20,294명에 그쳤다. 여기에 대표학술지 66개 중 회원 1만명 이상의 대형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26개로 39.4%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학자들이 몰려 있는 학회의 학술지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가 기초 자료 수집에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를 당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자료들을 송부했다. 다른 학술지의 장점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대로 이번 조사는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는 학술지 지원 개선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학술지 지원 개선 제도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

종교는 '기독교'만 선정
 응답률 12% 불과, 신뢰 없어
 학술지 지원책 기초자료로
 불교계 "소수학계는 고사"
 인문학계 차원 대응 나서야

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지 등재 제도는 내년 12월 완전 폐지되며, 지난해부터는 등재지 신규 선정도 중단된다.

문제는 자율 평가를 통한 우수 학술지 선정이다. 교과부는 2012년 10개, 2013년 15개, 2014년 20개 내외의 우수학술지를 선정해 1억 5000만 원씩을 5년 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결과적으로 5곳이 선정돼 각 7천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선정에는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 연구>가 2배수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최종 선발까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학회인 한국어영언문학회(영어영문학)가 선정됐다. 우수 학술지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소수 학문인 불교학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 대해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결과를 보고 일회일비할 필요도 없다"며 "학술지 지원 개선 정책 자체가 졸속행정"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인기투표로 우수 학술지를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선호도를 놓고 학술지를 평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적은 불교학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존 등재 제도를 보완해 등재지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학술지는 등재를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석길암 금강대 HK연구센터 교수는 "신학 연구자는 1800여 명이 넘지만 불교 전문 연구자는 200~300명 수준이다. 다양한 불교학 분야에 비하면 연구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사실 박사들은 많이 양성되지만, 50%가 만학도"라며 "나머지 인원도 전업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지 않다. 불교계 종단들이 나서서 불교학 진흥을 위한 복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일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지도자들이 상호 간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시대의 아픔 해결, 불교가 앞장서자”

종단협, 15일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사회 양극화, 인권 유린,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5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시대

의 아픔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자승

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린다”고 당부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들 신뢰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기원사와 신년인사에서 불교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종단협 부회장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기원사에서 “천지는 한 뿌리이고 부처와 중생은 한몸이라 했으니 불교는 돌이 아닌 도리 속에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

장)도 신년 인사를 통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참회로 허물을 버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부처님과 같은 수행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탐진치를 비우고 자비음(慈悲勇)을 채우며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 부회장 인공 스님, 도정 스님, 혜정 정사, 향적 스님 등 협회 종단 관계자를 비롯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홍길 특임 장관, 정갑윤 국회 정국회장, 박범훈 청와대 불자회장, 강봉석 종무원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신종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국보급 삼국유사 초기 판본 공개

기존 정덕본 누락 부분 발견... 높은 가치 가져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삼국유사> 조선 초기 판본이 공개됐다. 특히 이 <삼국유사> 판본은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존형태가 완벽해 고대사 연구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연세대는 1월 16일故손보기 연세대 사학과 교수 유족들이 손 교수가 소장해온 ‘삼국유사’ 1책(왕력, 권1, 권2)을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삼국유사>는 판본이 많지 않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1512년 경주 부윤 이계복이 간행한 중종 임신본(국보 306-2호)이 유일한 판본이었다. 이후 조선초기 간행본이 밝혀졌

으나 총 5권 중 2, 3, 4, 5권(현재 보물 419-2호, 국보 306-1호)만이 남아있었다.

연세대가 공개한 <삼국유사> 1책은 신라·고구려·백제·가야의 역대 왕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술한 ‘왕력편’과 삼국시대 각종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기이편(奇異篇)’ 권1과 권2로 구성돼 있다.

손 교수 유족이 기증한 <삼국유사> 1책은 낙장 없이 완벽한 상태로 초기간행본 권2(보물 419-2호)와 대조한 결과 같은 판본임이 확인됐다.

특히 글자 탈락·오류가 많았던 ‘역대 왕조별 왕의 족보’ 등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기존 정덕본



에서 확인되지 않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연세대 박물관은 이번 기증된 <삼국유사> 판본을 손보기 교수의 아호를 따 ‘파본본’이라고 부르고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 학술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 박물관장을 역임한 손보기 교수는 공주 석장리를 발굴 등을 지휘한 선사학 권위자로 한국학자를 세계 학계에 소개한 한국 고학자 전문가이기도 하다. 노덕현 기자

924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기자회견
 군중특별교구 2013 특성화 전략
 통도사, 밀양케이불카대역 간담회
 조계종 '종교인 과세' 논의
 불교사회학 연구회 본격화

시방세계 5
 6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강의실 중계 8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신상품
천덕불교 LED 인공전구
 031792-6288
 031794-4066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해룡 스님 지음
 288면, 13,000원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 읽기
 시방 스님 지음
 288면, 14,000원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꾸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는글> 중에서